

카스텔 가문의 자제들은 여섯 살이 되면 성에 기거하는 검술 가정교사와 수련을 시작한다.

장소는 가문의 자제들과 카스텔 공작군의 지휘관들이 사용하는 수련장의 한 쪽.

아직 기사서임을 받지 못한 자제들은 이곳에서 다같이 수련을 받았다.

내 위로 세 명의 형제들이 일렬로 서있는 앞에 회색머리의 중년남성이 목검을 땅에 짚고 서있다.

이번에도 오랜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 있어 반가웠지만 외적으로는 처음보는 듯 약간 얼어있는 모습을 보여줘야했다.

긴장된 분위기를 깨며 남자가 말문을 연다.

"카스텔의 자제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검술 가정교사 에밀 뒤르크하임이라 합니다."

은퇴한 성기사였던 스승님은 카스텔에 기여한 봉사들을 인정받아 가문의 자제들을 가르치며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중이었다.

그러다 내가 가문의 수치라 불리던 스무 살때 수명을 다하시고 자연히 돌아가셨지만.

그에게서 전수받은 카스텔 고유의 롱소드 검술은 여전히 내 영혼이 기억하고 있었다.

스승님께선 가장 공들여 키웠던 제자가 허무하게 망가지는 것을 보며 애통해 하셨고.

카스텔 성 안의 누구보다도 깊은 애정을 담아 방황하던 나를 엄하게 질책하던 분이셨지만.

과거의 나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새겨듣지 못했다.

눈물이 날듯말듯한 걸 억지로 참느라 아둥바둥 하고 있으니 스승님이 나를 보며 미소지어보였다.

"로빈 공자님께서는 많이 긴장을 하셨나봅니다. 그러나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저 간단한 기초만 가르쳐드릴겁니다."

약간 목이 메이는 것 같아 나는 말없이 고개를 고덕이 기만 했다.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로빈 도런
님께서 처음 수련에 참가하셨으니."

옆에서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의 시선이 동시에 나에게
로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은 이미 이 다음에 무엇이 있을 지 알고 있는 것
이었다.

물론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겠지만 나 역시 무슨 질
문이 내게 던져질 지 알고 있었다.

"이 질문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대답은 자유롭게 하셔
도 되니 편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스승님께서는 항상 처음 검을 가르칠 때 이 질문부터 던지며 수련을 시작하셨다.

검을...

"로빈 도련님께서는"

들려는 이유가 무엇이나.

"검을 들러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전생의 내가 했던 대답은 '저는 최고의 성기사가 될 거니까요.' 였다.

그때 나를 바라보면서 띠꺼운 기분을 감추며 어색하게

웃던 저 여덟째, 일곱째, 여섯째의 표정이 기억난다.

재능 있는 막내동생과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못한 자신들의 신성력 개방시기 때문에 일찍부터 압박감을 느꼈던 것이리라.

이번엔 튀지 말자.

"저는 훌륭한 성기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어요."

교과서적인 답변에 다른 형제들은 별 표정변화 없이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무난한 반응이면 무난하게 잘해낸 것 같다.

"음. 그러시군요. 제가 도련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앞으로 스승 노릇을 잘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고의 성기사가 되겠다 했던 전생과는 다른 대답이셨다.

그땐 '도련님께서 정말로 최고가 되고자 하신다면 저 역시 최고의 방법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다.

이젠 좀 기억이 가물거리긴 하지만.

"비록 이제는 오래전 전장을 떠난 몸입니다만. 여러분

들의 형님 누님들 모두 제게서 처음 검을 쥐는 법부터 배우셨습니다."

에밀의 시선이 앞에 서있는 네 명의 제자들을 차례로 훑었다.

"여러분들께서 쥔 목검이 진검으로 바뀌고, 그 진검에 깃든 신성력을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 있을 때까지 제 가르침을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 께서는 꼭 가문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 사람의 성기사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검술수련에 참가했던 날의 기억 위에서 새롭게 흘러가는 삶을 이어나간다.

다시 가주의 권좌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

된 것이다.

"그럼. 오늘 수련 시작하겠습니다."

* * *

첫 검술 수련은 그렇게 별탈없이 넘어갔다.

에밀의 가르침 아래 검술수련을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루하루가 빠르게 흘러가는 기분이 들었다.

허나 나로서는 좀 골치가 아플 수 밖에 없었는데.

형제들과 검술수련을 할때는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하는 척 연기 하다가도.

가문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개인 수련을 할 때면 예전에 배웠던 기술들이 지금도 잘 되는지, 신성력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룰 수 있는 지 점검하고 보완하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성 안에서는 마음 놓고 나만의 수련에 몰두 할만한 공간이 적었다.

가문사람들 뿐 아니라 수 백이 넘는 하인들과 성을 방문하는 다른 귀족들과 왕국의 관리들이 쉴 새없이 오는 탓에.

조금만 방심하면 보는 눈들이 나타나 수련에 휘방을 놓았다.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 이 어린 몸에도 내가 과거에 도달했던 신성력의 경지가 하루 빨리 다시 펼쳐지려면. 이대로는 답이 없어.

그 생각으로 잠들지 못하던 어느 밤.

나는 불현듯 전생의 내가 죽기 3일 전 생사르트의 전 당포를 찾아가 어머니가 남긴 반지의 감정을 맡겼던 일이 떠올랐다.

'이 반지에는 상당히 복잡한 마법식이 각인되어 있는 듯 합니다. 공자님. 하나는 공간계열의 마법이며, 다른 하나는...'

전당포 노인의 마지막 말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그날 나는 전당포 노인이 마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것엔 관심이 없어 바로 얼마를 쳐줄 건지만 붙어 봤었으리라.

그러나 한 번 다시 떠오른 기억은 버려져있던 그물처럼 다른 잊혀진 기억들까지 줄줄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전당포로 가져간 반지를 발견한 위치였다.

그리고 보니 어머니의 반지가 왜 유모의 방에서 나왔던 거지. 이상하군.

노름판에서 잃은 돈을 어떻게든 만회하고자 급전을 마련해야만 했던 나는 일단 팔아치울 물건을 발견했다는 것에 정신이 팔려 가장 중요한 질문을 그녀에게 던지지 않았다

왜 내 어머니의 물건을 하인인 그녀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것도 어머니가 떠나간 지 이 십 년이 지나도록 말이다.

하지만... 유모는 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나의 수발을 들어준 고마운 사람이다. 나를 키워준 어머니와도 같은 그녀가 다른 공공이가 있었을 거란 생각은...

그때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

신성청에서 연이어 심문과 고문을 받던 중에 나는 모든 것을 의심했었다.

여덟 명의 남매들과 세 명의 부인들, 그리고 이 가문에서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가주이자, 내 아버지인 남자까지.

하지만 한 번도 유모를 의심해본 적은 없었다.

지난 생에서는.

이번 생에서 내 모든 것이 달라야 한다면 유모를 바라보는 내 시선도 달라져야 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유모의 침실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네 잠시만요~"

여전히 내가 알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다.

푸근하고 서글서글한 중년 여자의 목소리.

신분상으로는 비록 하인일 지라도 갓난아기 때부터 내게 먹일 것과 입힐 것을 챙기며 키워주었던 고마운 여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아! 도련님! 이 시간에 어떤 일이세요?"

"물어볼 게 있어서. 잠깐 안으로 들어가도 돼?"

"저한테요? 우리 똑똑하신 로빈 도련님께서 이 무식한 친내에게 물어보실 만한 것이 뭐가 있으시려나요? 호호호."

유모가 방문을 열어주며 나를 안으로 들였다.

침대와 책상, 그리고 의자 하나 만이 덩그러니 놓인
단출한 방 안에서 나는 그녀의 쾌활한 웃음을 향해 의
구심의 뽀족한 끝을 찔렀다.

마찬가지로 별일 아닌 듯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유모. 어머니께서 반지 준 적 있지?"

"네?... 반지...요?"

미소짓던 그녀의 얼굴 위로 두려움과 망설임이 스친다.

나는 직감했다.

그녀에겐 내게 감춰야만 하는 비밀이 있음을.

"응. 보라색 보석이 박힌 황금 반지말이야. 유모가 갖고 있잖아?"

유모는 황급히 자신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쥐었다.

나는 그녀의 오른손에서 아침햇살을 받아 빛나는 보라색 보석이 박힌 황금반지를 놓치지 않았다.

"아... 아니요?... 저는... 도련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오른손."

"네?..."

"오른손 보여줘. 유모. 안 보여주면 아버지한테 다 말
씀드릴 거야."

가주가 언급되자 갈등에 빠진 유모가 덜덜 떨면서 왼
손을 오른손에서 걷어냈다.

그 통통한 오른손의 약지에서 보라색 보석이 박힌 황
금반지가 복도의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햇살을 받아 빛
났다.

"유모. 이 반지는 뭐야? 어머니가 준 게 아니면. 어떻
게 이런 비싼 반지를 갖고 있어?"

유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죄... 죄송...합니다! 도련님!!! 제... 제가 도련님께 전해 드린다는게... 그...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

핑계를 대는 그녀를 바라보며 나는 그동안 갖고 있던 애정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전생에서 유모는 내가 스물 여섯이 될 때 까지도 저 반지에 대해 알려주거나 전해준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남긴 반지이고 그녀의 말대로 내게 전해줬어야 하는 것이라면.

왜 20년동안 그녀는 그것을 내게 감춰왔던 것일까.

이 년. 설마 누군가의 꼬나풀이었나.

이 성 안에서 카스텔의 성씨를 가진 자들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끼리도 서로 경쟁하였을 뿐 아니라.

배다른 형제들을 향해서는 권모술수를 부리는 것 역시 거리낌 없었다.

유모의 뒤를 캐면 그림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일 지도 모르겠는데...

허나 그녀에게 명을 내리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 패를 모두 까발리는 건 악수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느끼는 깊은 배신감을 뒤로한 채
나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했다.

지금은 저들의 반격을 버텨내고 역습을 가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강해지는 것이 우선이다. 오늘은 뒷선을 알
아내는데서 만족하고 다음을 기약하자.

앞으로의 방침을 정한 나는 흔들리는 유모의 두 눈을
바라보았다.

"그 반지. 이리 줘. 유모."

유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오른손 약지에서
빼내어 내게 내밀었다.

어린아이의 고사리 손 위에 올려진 씨알 굵은 보석반
지.

어머니가 왜 이 반지를 날 위해 남기셨는지 그리고 누
가 이 반지를 감추라 명했는 지 알아내야 했다.

"누가 이 반지를 감추라고 했지?"

여섯살 짜리 도련님 앞에서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바
들바들 떠는 중년 여성의 모습은 보는 이가 있다면 안
쓰러움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허나 나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왜 대답이 없어? 내가 묻고 있잖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도련님... 그럼... 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

아무래도 내가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지금 유모는 우리 가문의 셋째부인이신 내 어머니의
반지를 훔쳤다가 나한테 걸린 거야. 그걸 아버지께서
알면... 그때는 살 수 있을 거 같아?"

"후... 흠치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도련님!... 쇠... 쇠...
내 는 그 저... 아르카나 부인에게서 명하신 대로 했을 뿐
입니다... 사... 살려주십시오 도련님!!!"

이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빌며 읊소
하는 유모를 바라보며 나는 익히 아는 한 여인을 생각
했다.

정실부인 아르카나 알란소 카스텔... 설마 네 놈이 날...

전생의 삶을 불태워버렸던 화형장의 불길처럼 내 안에
서 분노의 불길이 일었다.

- 2. 내가 알던 네가 아니었다. 끝 -